/로이터=뉴스1최근 한 달 동안 홍콩 증시가 약 20% 급등한 배경에 중국 투자자들의 거액 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펀드 중에서도 홍콩 주식을 편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중국 재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홍콩증시는 개장과 함께 급등하면서 오전 한때 1만9442.9를 찍은 후 1.59% 오른 1만9376.53에 마감했다. 기술주 위주인 항셍테크지수도 0.76% 상승한 4072.15에 거래를 마쳤다. 20거래일동안 항셍지수와 항셍테크지수는 모두 19% 넘게 급등했다. 홍콩 증시의 상승에는 남향(南向)자금(후강퉁·선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의 홍콩증시 투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홍콩증시로 순유입된 남향자금은 2375억홍콩달러(약 41조원)를 돌파했으며 3~4월에는 매달 800억홍콩달러(약 13조8400억원) 이상이 홍콩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전문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 경제지표와 정책 환경의 개선이 홍콩 증시 강세의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홍콩 증시 랠리에서 4월 16일(중국의 1분기 GDP 발표일)이 분수령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3%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자 글로벌 투자은행이 앞다퉈 중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도 주가가 바닥을 찍은 홍콩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홍콩 항셍지수 추이/그래픽=조수아지난 4년 연속 하락한 홍콩증시는 4월 중순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 16일까지 홍콩 항셍지수와 항셍테크지수는 20거래일 동안 각각 19.3%, 22% 급등했다. 연초 하락했기 때문에 항셍지수와 항셍테크지수의 올해 상승폭은 각 13.7%, 8.2%에 불과하다. 중국 펀드 상품 중에서도 홍콩 주식을 편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돋보였다. 16일까지 광파 강구퉁 비은행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27.8%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팡다 강구퉁 인터넷 ETF의 수익률도 23%를 넘어섰다. GF 펀드 매니지먼트의 장동이 펀드 매니저는 "전 세계 증시에 비해, 주가수익비율(PER)·주가순자산비율(PBR)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같은 수익성으로 볼 때도 홍콩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투자가치가 큰 주식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자산운용사인 차이나 머천트 펀드의 연구원은 "국내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유동성 증가 기대가 겹쳐 단기적으로 홍콩 증시의 반등기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 추세는 중국 경제 회복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